

25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고, 거기서 나오는 절대 축복과 절대 응답이다.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하고, 신학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섭리라고 한다.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다.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, 내 인생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?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.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? 사람 스스로는 안 된다.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.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인격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다.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,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.

본문의 기생 라합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다. 라합은 적어도 세가지의 절대 축복을 누린 여인이다.

첫째는 예리고성이 완전히 멸망을 받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여인이다. 우리가 그 속에 있다.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, 온 세상이 심판받는 시간이 올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자로 있는 것이다.

둘째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여인이었는데, 하나님께는 너무 존귀한 여인이 된 것이다.

기생이라고 한 것은 밥을 팔면서 술을 팔고, 몸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인데, 이런 여인이 히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대열에 들어간다.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, 가장 가치없는 자가 가장 가치있는 자가 된 것이다.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.

셋째로 이 여인을 통해 세계가 바뀐 것이다.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니 그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,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.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, 왜 하필이면 이런 여인이었을까?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,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 그것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 25이다.

1.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? 결국은 이 여인을 택하시고,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.

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시고,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이 여인의 선택이고, 반응이었다.

1) 이 라합은 구원을 선택한 것이다.

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.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?

① 구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, 그래서 위로도 받고,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다.

구원은 한마디로 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.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, 실패, 아픔, 눈물, 전부 운명이다.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면 그것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된다(출20:4-5)

운명을 만드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(원죄, 조상 죄, 그 배후의 사단).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당한다.

② 이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. 인간 스스로 안 되니까 아들이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다.

그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이 바뀌는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다(계3:20)

라합은 정탐꾼들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, 이들을 영접했다고 했다(히11:31)

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.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, 세상의 미래도 바꾸는 것이다.

③ 이 라합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가?

더 이상 멸망 당할 백성에 속한 자가 아니다. 더 이상 기생으로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.

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(요1:12), 하나님의 백성이고(엡2:19), 세상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다.

2) 이 라합은 언약을 선택한 것이다.

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에게 정확한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했다(12절). 그 징표가 “붉은 줄”이었다(18절, 21절)

① 이 “붉은 줄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?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가 끝나는 언약이다.

여리고가 무너지고,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붉은 줄을 걸고 있는 라합과 그 가족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.

②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에 우리의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.

내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.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. 앞으로 또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.

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짓누르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. 이것이 갈보리 체험이다

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것을 체험했고(출12:27), 이 가나안 전쟁에 다시 할례를 받으며 체험했다(수5:9)

3) 이 라합은 미래와 영원을 선택한 것이다.

① 어떤 면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.

복음을 받은 1세대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.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볼 때이다.

② 지금 손해를 보고, 억울한 일을 당하고,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온다는 것이다.

라합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, 가장 존귀한 자의 대열에 선 것은 그녀가 선택하고 심은 열매이다(갈6:7-8).

모든 것을 하늘에 쌓고(마6:19-20), 땅의 것이 아닌 위엣 것(보좌)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그것이다(골3:1-4).

2. 이 축복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?

망대를 세우는 것이다. 망대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문제와 현장 속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, 시간이다.

우연인 것 같지만 이 라합의 집이 예리고성의 망대 아래 있는 집이었다. 라합의 인생이 망대가 된 것이다.

1) 나 개인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한다(기도 망대).

내가 하나님과 1:1로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같등이고, 어려울 것이다. 문제 오면 무너진다.

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세가지 축복을 이루신다,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(창1:27),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(창2:7),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(창2:18).

어떤 문제가 와도, 평상시에, 여행 중에도 이것이 내 영적 시스템이 될 정도로 세팅이 되어야 한다.

2) 내 가정과 교회와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한다(전도 망대).

내 가정과 교회와 후대는 연결되어 있다. 가정이 교회이다. 모일 때는 성전 교회이다. 후대는 미래 교회이다.

한 가정과 교회가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때는 누군가가 망대 역할을 했고, 거기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이다.

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, 시간간 초월하는 응답이 오고, 빛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다.

3) 내 지역과 오천 종족을 위한 망대를 세워야 한다(선교 망대).

두 정탐꾼이 예리고에 가서 라합같은 제자 하나를 만났다. 그 후대 속에서 세계를 살린 다윗과 그리스도가 왔다.

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선대했다고 했다(12절). 라합이 누린 축복은 전도자를 선대한 열매이다(마10:40-42)

전도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. 이것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도 237 살리는 선교사로 일어난다.

결론-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부끄럽고 천한 사람일수도 있다. 하나님은 그 라합을 세워 시대 살릴 가정과 가문을 만들고, 세계를 바꾼 것이다. 우리가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한다.